

TV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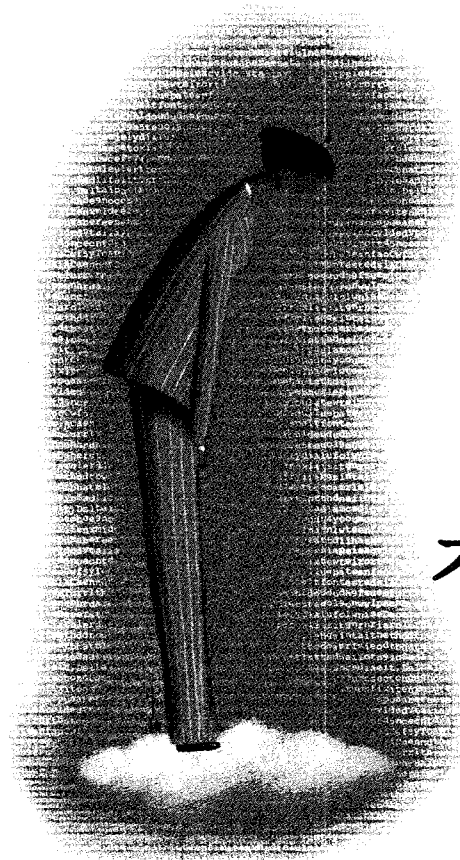


이동식 / KBS-ITV 편집주간

영국 리버풀에 살고 있는 74살의 지니날드 크루 할아버지는 2002년 12월 13일 스위스 취리히로 날아갔다. 회복이 불가능한 운동신경계 마비질환을 앓고 있는 크루 씨는 그곳에 얻어놓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야 할 여행을 차분히 준비했다. 오전 10시에는 의사와 상담했다. 의사는 크루 씨가 진정으로 자살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의사와 만나기까지는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

그에게는 다량의 바르미튜르산염이 함유된 약병 하나가 주어졌다. 오후 3시, 71살의 아내와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웅컴의 신경안정제를 삼킨 뒤 눈을 감았다. 4분 뒤 그는 한 많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다.

“나를 돌보는 것이 내 가족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너무나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나 자신 또한 이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디그니타스에 자살을 신청했던 지난달 크루는 말했다. 온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사는 것이 고통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의 소망은 이뤄졌다.



자살 여행

이 뉴스를 통해 스위스에는 자살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어서 보다 편하게 자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스위스는 이미 1942년에 안락사법을 제정해, 안락사를 허용했다. 현재까지 4개의 안락사 지원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자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가장 규모가 큰 '디그니타스'의 회원들은 입회비 70달러, 연회비 30달러만 내면 언제든지 스위스에 와서 안락사할 수 있다.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도 가능하지만 스위스보다 훨씬 까다롭다. 크루 씨는 영국에서 자살을 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스위스에 온 것이다.

이렇게 불치병을 앓는 외국인들이 자살하려고 스위스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스위스 당국에 따르면 취리히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은 2000년 3건에서 2001년엔 38건, 2002년 55건으로 급증했다. 자살자 대부분은 외국인이다.

자살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행동양식이라고 한다. 그것은 생에 대한 자기 자신의 결정의 표현일 수 있다. 카뮈는 <시지프의 신화>에서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문제에 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정말 삶이 힘들 때에 스스로 자신의 생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살은 다른 한편으로는 생으로부터 무기력하게 도피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부여받은 이상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중간에 마감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약을 복용해 자살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안락사, 곧 다른 사람을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살인에 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남녀 3명이 지난 2월 5일 자살 여행 중 강릉의 숙박업소에서 극약을 마셔 2명이 중태에 빠졌는데, 경찰이 이들과 여행을 하며 함께 투숙했으나 이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은 권 모(25. 여. 대전시 동구)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치병에 걸려 더 이상 생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차라리 자살하겠다고 할 때에 오히려 허용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더구나 아직까지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이 잘 되어있지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집안의 불치병 환자들은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안락사 허용은 이른 것 같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낼 수 있는가 더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비가 없는 극빈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들을 맡아서 요양을 해주어야 한다. 안락사 허용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보장의 확충이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 돼야 한다. 이제는 너무 일상화되어버린 자살, 그 자살과 안락사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의료, 사회보험의 확충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P.P.P.K